☞ 29면에서 계속

현세에 내가 안고 있는 것 그대로 미래의 씨앗이 돼

만약에 태양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내가 태양이 돼가지고 그 태양계를 본다면 전부 그게 그거니까 그 속에서 다 알게 되지만, 가고 옴이 없이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어디서 된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내고 병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해서 밝혀낸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벌레가 자꾸 식물에 끼니까 독한 약을 뿌려서 처음엔 다 죽었는데 그것이 벌써, '아, 저런 거를 뿌리는구나.' 이러고 알고선 안 죽어요. 그리고 딴 걸로 대치가 돼. 그러니까 녹을 수가 없죠. 천차만별로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영계성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모두 혼미해지는 그런 연관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금 발견했다 해서, 즉 말하자면 지금도 발견한 사람들이 간암이니 백혈병이니 쭉 이름을 내놓은 거지, 그게 본래부터 전자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백혈병이다 골수암이다 해도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이름이니까, 내 마음으로써 내 육체 안에 들어 있는 그 모든 의식들을 다 흡수해서 작용할 수만 있다면 암이다 뭐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작용하는 거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똥마려우면 똥눌 뿐, 그와 같은 거죠.

▲질문자1: 스님께서 여태까지 답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반복해서 듣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가 조금씩 진전이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벽에 부딪쳐 더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공부를 단계 없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세 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와 대상을 둘 아니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말이나 또는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저 그렇고 그럴 뿐이지, 투철한 실천은 못 된다고 봅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닌 것을 느끼는 경지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무조건 믿는 거,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는 거, 내가 조금 믿다가 부딪치면 "이거 뭐 이렇게 찾아도 안 되는데."이러고 벌렁 나가자빠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마음이 안 믿는다 믿는다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지금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잘되기만 하면 좋다고 하다가 안 되면 주인공 찾아도 뭐 만날 마찬가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데 말입니다.

공부할 때에 자기한테 자기가 테스트해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알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옵니다. 오는 것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럴 때는 '아하! 요것도 알아보려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냥 제깍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요런 게 또 왔으니 이거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하나, 주인공을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안된다고 하고는 그냥 '정말이지 허구장천 못났든 잘났든 널 믿어라, 죽는 것도 거기고 사는 것도 거기다.' 이래도 그렇게 안 들어가나 보죠. 그러니까 한 발짝도 실천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화살을 쏘려면 정(定)의 화살을 쏴야 될 텐데 여기 쐈다 저기 쐈다 이러니깐 이게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금방 죽는대도 '흥, 네가 끌고 다니는 네 몸뚱이 죽인다 해서 내가 외는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그냥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놔버린다면 되는 건데! 그렇게들 그냥 붙들고 모두 작첩(作疊)을 하고 붙들고 늘어지니 글쎄 그놈의 게, 그게 인과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게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게 모두가 인과가 되는 거라구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면 아예 놓고 줄을 잡고 그냥 툭툭… 딴 데로 가면 툭, 왜곡되게 가면 툭, 이렇게 마음의 줄로다가 잡아야지 마음이 잡히지, 이건 실질적으로, 실체를 말로다가 잡으려고 그러니 그 몸이 잡아집니까?

마음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설이 돼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방에도 전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스위치만 누르니까 방에 불이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한 식구가, 내 집 식구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 밝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밝게 켤 줄을 모르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만 법(法)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법이니까 양면을 다 놓아서 같이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진실하다면 양면을, 이런 게 와도 거기 놓고 저런 게 와도 거기 놓고 중심의 중용을 잘하면 그게 굴림이죠. 그게 수레공법(空法)이에요.

오늘 그것을 참 질문 잘 하셨습니다. 사람이 머리로만 한다면 진실한 마음의 하달이 전신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권처(權處)에서 바로 두뇌로 올라가는 게 누진입니다. 누진으로서 몸의 사대(四大)로 하달을 해서 바깥으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심성과학! 종합 심성과학입니다, 모두가.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부 못 하면 후일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갈리고, 나만 말리면 좋은데 또…, 내가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위로는 믁은 빚을 갚으며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면 위로는 묵은 빚도 갚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묵은 뿌리의 썩은 것도 자를 수 없고 아래 자녀들의 뿌리도 성성하게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 뿌리가 썩었는데 님의 뿌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묵은 빚도 갚을 겸 햇빛도 줄 겸 나도 세세생생에 권도(權道)를 가지고 여래장(如來藏)이 돼서 수레공법이나 평등공법을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난 법문 더 할 거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다 법문이 돼서 있는데… 한 서너너덧 분 질문이나 받겠습니다.

▲질문자2: 저는 질문 드리려 나온 게 아니구요, 베풀어주신 덕분에 일본에서 지난달 귀국을 잘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3: 얼마 전에 불경 공부를 하다가 금강경에 나오든가 법화경에 나오든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하는 그 마음도리를 공부하고, 또 스님의 법문 중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하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하는 것은,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오는 거 그대로 놓아가면서 수 없는 생각도 놓아가고, 삶도 놓아가고 죽음도 놓아 가는 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여여하게 가는 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퍼올라서 그 순간에는 '아, 요게 요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른 느낌을 가진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그건 초심자일 때 느낄 수 있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렇게 느끼신 것만 해도 어딥니까? 하여튼 우리가 발자취를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이 다 그렇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거든지, 듣는 거든지, 말하는 거든지, 가고 오는 거든지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화(化)해서 바뀌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무는 바 없이 하는 거죠.

아빠라고 자식이 부르면 그냥 금방 머무는 바 없이 아빠가 돼서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을 하죠. 그러다가도 아내가 부르면 그냥 순간 머무는 바 없이 남편이 돼가지고 남편 행을 하고, 남편으로서 말을 하고, 남편으로서 뜻을 가지고 돌아가니 삼합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머물고 돌아가는 거죠, 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하신 겁니다.

▲질문자3: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말에 끄달린 것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스님: 그거는 어느 경지라고 할 거는 없지만 어떻게 놓고 가다가 보면 저절로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놔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치원생더러 초등학교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원은 다 다르지마는 하고 가는 거는 똑바르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는 문제는, 정신이 잘못돼서 나간다거나 영계성이 들렸다든가 유전성이 들렸다든가, 또는 세균성이 들렸다든가, 아무리 골수염이다 할지라도 백혈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든지 바로 내 뼛속의 생명들과 바로 둘이 아닐 때,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손가락더러 "네 손가락 잘라라." 이러면 자르겠습니까? 못 자르죠!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의식들을 같이 한마음으로 동결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전부 뼛속도 작용을 해줍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어떠한 문제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걸 병으로 알지 말고 애고로 알지 말고 인과응보로 알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 '공부하라고 나에게 이런 재료가 생기는구나!' 하고 돌려놓고 지켜보고 체험하고 자꾸자꾸 놓고 돌아가다 보면 놓을 것도 없고 놓는 걸 받을 놈도 없다는 것이 스스로 알아질 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때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질문자3: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0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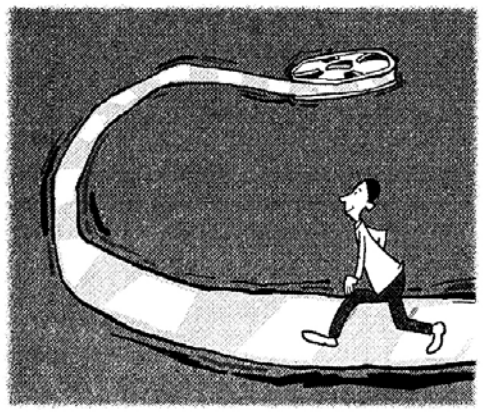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인생이 나고 가는데 어찌 한철만 중하게 여기나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가을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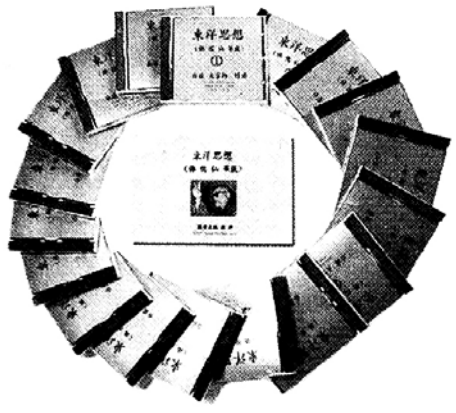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동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 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맹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